

해외 업계 소식

홍콩 PCCW와 제휴 中 e비즈니스 시장 공략

IBM이 홍콩의 통신서비스 업체인 퍼시픽센추리사이버웍스(PCCW)와 제휴를 맺고 중국 e비즈니스 서비스 시장 공략에 나선다.

IBM은 PCCW의 고객기반을 발판으로 중소 규모 기업시장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WTO 가입을 앞두고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의 주문형뱅킹(BOD) 시장공략에도 가속을 더할 계획이다.

두 회사는 중국 e비즈니스 솔루션 시장이 현재 30억달러에서 오는 2005년에는 12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관측하고 관련 서비스부문에서 향후 10년간 3억달러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日, BS 디지털TV 가격경쟁 '불꽃'

일본 디지털TV 시장에 가격경쟁 바람이 일고 있다.

도시바에 이어 일본 TV 업계 1위인 마쓰시타 전기 산업도 방송위성(BS) 디지털TV 수신기를 내장한 저가의 디지털TV 신제품 3기종을 10월 출시할 계획이다.

마쓰시타는 OEM 공급분을 포함해 일본 디지털TV 시장을 50% 이상 점유하고 있는 이 분야 최대 업체이며 사실상의 가격 인하 조치인 마쓰시타의 저가 신제품 출시 계획은 소니등 다른 경쟁업체들을 자극해 본격적인 가격 경쟁을 불러올 것이다.

또 도시바와 마쓰시타의 잇따른 저가 신제품 출시로 전반적인 제품 가격이 현재 비해 20%

가량 떨어져 올 들어 침체를 보이고 있는 BS 디지털TV 시장의 회복도 기대된다.

28인치 제품의 경우 실제 거래가격인 20만엔을 밑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쓰시타는 기존의 '디지털타워' 시리즈 이름으로 36인치형과 32인치형, 28인치형 등 저가의 3기종을 10월 1일부터 판매한다.

36인치형은 권장소비자 가격이 39만5000엔이지만 실제로는 30만~33만엔 정도에 거래될 것으로 전망되며 매장에 따라서는 30만엔 이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32인치형은 실제 거래가격인 25만~28만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가 지난해 가을 내놓은 디지털타워의 실제 거래가격은 36인치형이 35만엔, 32인치형은 30만엔, 20인치형은 25만엔 정도다.

마쓰시타는 부품수를 줄이고 설계를 바꾸는 것 외에도 양산 효과에 따른 브라운관 등 기간 부품의 생산 효율성 향상 등으로 저가화를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신제품 3기종 합계 월간 5만대를 생산할 예정이며 기존 기종과 합쳐서는 내년 3월 말까지 1년간 약 40만~50만대를 판매(일본 시장점유율 약 40%)할 방침이다.

도시바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비해 실제 가격을 약 30% 내린 36인치형과 32인치형 신제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일본의 BS 디지털TV 시장은 BS 본방송이 시작된 지난해 12월까지 꾸준히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올 들어 수요가 급격히 떨어져 월간 판매 대수가 2만대를 못미치고 있다.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적고 튜너 및 디지털TV 등 수신장비 가격이 비싼 것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다.

마쓰시타는 올해 업계 전체 출하대수를 2000년의 3.5배인 200만대로 예상했다가 110만대로 하향조정했다.



해외 업계 소식

日, 컴바이러스 사전 차단 e메일 시스템 개발

컴퓨터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전자우편시스템이 개발됐다.

도쿄공업대학·도쿄대학·쓰쿠바대학·호쿠리쿠첨단과학기술대학원 등이 참여한 공동연구그룹이 미지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새로운 전자우편시스템을 설계했다.

공동연구그룹은 새 시스템이 전자우편의 첨부파일안에 숨겨져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자동색출한다고 소개하고 이 시스템을 올해안에 무상공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시스템은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의 내용을 분석하는 신기술이 채택돼 '파일을 삭제한다'나 '통신회선에 접속한다' 등 컴퓨터에 손상을 줄 것으로 보이는 프로그램이 잠복해 있는지 여부를 알아낸다.

이 시스템은 바이러스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해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현행 기술과 달리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바이러스도 곧바로 판별할 수 있다. 또 스스로 자신을 암호화해 위장하는 특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컴퓨터내에 만든 가상의 PC에서 모의로 소프트웨어를 가동시켜 바이러스 여부를 가려낸다.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서캠 바이러스 등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또 이 시스템은 보낸 사람의 신원이 분명하지 않으면 대량의 메일을 수신할 수 없게 하는 기능을 갖춰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정크메일도 방지할 수 있다. 이밖에 외부공격을 막아내는 성능이 높고 모방하기도 어려운 장점을 갖고 있

다. 이용자는 이 소프트웨어에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자동갱신해 다시 사용하면 된다.

이번 시스템 개발은 문부과학성이 바이러스 대책 마련 등과 관련해 추진하는 '사회기반으로서의 시큐리티컴퓨팅 연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대만 캔두사, 하이닉스 LCD 사업부문 단독인수 추진

대만의 전자회사인 캔두(Cando)사가 현대디스플레이테크놀로지(구 하이닉스반도체의 LCD 사업부문)를 독자 인수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대만전자시보가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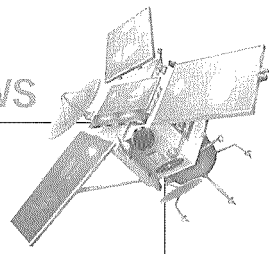
캔두사는 그동안 하이닉스반도체의 LCD사업부문을 중국 동광사와 공동 인수할 계획이었다.

대만전자시보에 따르면 해리 링 캔두사 사장은 최근 "중국 베이징 동광전자에 지난 7월 초 서신을 보내 하이닉스 LCD부문 인수와 관련한 제휴 관계를 단절할 것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美 애널리스트 "반도체회복 18개월 소요"

올들어 최악의 침체를 맞고 있는 세계 반도체 시장이 내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지만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는 18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새너제이에서 열린 세계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주최 회의에 참석한 주요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은 대체로 "반도체 및 장비시장이 완전히 건강을 되찾는 데까지는 아주 힘들고



면 길이 남아 있다"며 단기적으로 힘든 시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IC인사이드의 빌 매클린 사장은 현재 반도체 시장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올해 반도체 산업의 추이를 살펴보면 마치 내가 기르던 개가 차에 치인 것을 보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의 평균판매단가와 수요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과잉 설비투자로 인해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반도체 시장의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26% 감소해 지난 85년의 17% 감소보다 더 상황이 나쁘다"고 말했다.

IBM, 탄소나노튜브 사용 컴퓨터 회로 개발

이번 논리회로 제작에 사용된 탄소 나노튜브는 인간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로 트랜지스터·마이크로프로세서·컴퓨터칩 제조에 사용되는 실리콘을 대체할 가장 유망한 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이 극소형 이 회로는 '탄소 나노튜브 기술을 사용한 최초의 마이크로프로세서'라는 목표에 한발 다가선 것으로 평가된다.

IBM 나노스케일 사이언스의 패던 애보리스 매니저는 지난 8월 26일 시카고에서 열린 아메리칸 케미컬 소사이어티 회의에 참석, "우리는 앞으로 이 탄소 나노튜브를 수백만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탄소 나노튜브 기술을 사용한 마이크로프로세서가 개발되면 컴퓨터 크기가 보다 작아지고 속도와 절전기능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이크로칩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량은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은 실리콘칩 기술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10~15년 내에 벽에 부딪히고, 탄소 나노튜브가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991년 일본의 이지마 교수가 발견한 탄소 나노튜브는 우수한 기계적 특성·전기적 선택성·뛰어난 전계방출 특성·고효율 수소저장매체의 특성을 지닌 완벽한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하나의 탄소가 다른 탄소원자와 육각형 벌집 무늬로 결합돼 100만분의 1mm의 원통 형태를 이루는 탄소 나노튜브는 나노테크놀로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최초의 탄소 나노튜브 트랜지스터는 지난 98년 IBM과 NEC의 과학자들이 만들었다

세계 반도체장비 매출 39%

지난 2·4분기의 전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의 매출액과 신규수주액이 1년전에 비해 큰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7일 세계 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 따르면, 2·4분기의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는 70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7억 달러에 비해 39.5%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1·4분기의 113억 달러에 비해서도 37.2% 감소한 수치다.

특히 한국과 일본 시장에서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는데, 2·4분기 국내 시장 규모는 4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억1000만 달러에 비해 59.6%, 1·4분기의 10억3000만 달러에 비해서는 52.5%가 각각 줄어들었다.

2·4분기 일본시장 규모는 17억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8억3000만 달러)에 비해서는 2.8% 감소에 그쳤지만, 1·4분기(33억7000만 달러)에 비해서는 4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미 시장과 대만 시장은 이전 분기에



해외 업계 소식

비해 감소율이 27.8% 및 16.0%로, 상대적으로 매출 부진이 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4분기의 신규 수주액은 42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73%, 1·4분기에 비해서는 34% 줄어들었다.

SEMI의 엘리자베스 슈만 이사는 "올해 상반기의 신규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63%나 줄어들었다"고 말하고,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감소에 그쳤지만, 2·4분기에 큰 폭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월 북미 시장의 신규 수주액은 7억6400만 달러로, 6월에 비해 5%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후지쯔, 하드디스크 기록밀도 100Gb 달성

IBM에 이어 후지쯔가 하드디스크 평방 인치당 100Gb의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후지쯔의 새로운 기술은 IBM이 지난 5월 플래터에 투테니움 원소의 층을 추가시킨 AFC(Anti Ferromagnetically Coupled) 미디어를 이용해 100Gb의 기록밀도를 달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투테니움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 이 회사 부사장 마이크 체너리는 "후지쯔의 기술도 투테니움을 사용하지만 핵심 기술은 IBM의 것과 다르다"고 밝혔다.

후지쯔는 오는 11월초 이 기술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해 2003년 초반 완전한 평방 인치당 100Gb의 기록밀도를 갖는 100Gb(2.5인치 플래터 2장) 하드디스크를 내놓을 계획이다.

체너리 부사장은 "새 기술이 실험실에서 나와 실제 제품에 적용되려면 18개월에서 2년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며 "그때쯤이 돼야 그 정도 용량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용제품의 경우 40~80Gb의 노트북용 하드디스크가 평방 인치당 40Gb로 최고수준의 기록밀도를 제공한다.

후지쯔는 약 1년뒤 80Gb의 기록밀도를 갖는 플래터 2장짜리 80Gb 하드디스크를 내놓을 계획이다.

히타치, 중국서 CDMA단말기 300만대 합작생산

일본의 이동전화단말기 생산업체 히타치는 내년에 중국에서 300만대에 달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중국 현지의 하이센스전기와 합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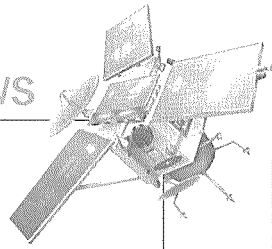
하이센스 전기의 주 후지안 사장은 양사간의 협력을 통해 중국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이동전화단말기 시장의 10%를 점유하고 중국적으로는 연간 단말기 생산대수를 500만대까지 늘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히타치 디지털 미디어 제품부의 가와세 마사키는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일부 물량은 미국시장에 수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텔, 802.11b 지원 홈 네트워킹 제품 출시

인텔이 802.11b를 지원하는 홈네트워킹제품을 내놓음에 따라 802.11b가 홈네트워킹 표준으로 입지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

지난 3월 홈네트워킹 표준으로 홈RF 대신 802.11b와 와이파이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인텔이 처음으로 802.11b를 지원하는 홈네트워킹장



비인 '애니포인트 와이어리스 II'를 내놴다.

그동안 기업과 가정 시장을 각각 802.11b와 홈 RF로 나눠 공략하는 이원화전략을 구사해온 인텔이 방향을 선회한 것은 802.11b 장비의 가격이 지난해 크게 떨어짐에 따라 저렴한 가격을 앞세웠던 홈RF의 입지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홈RF는 지멘스·모토로라·컴팩 등이 후원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이를 지원하는 업체를 추가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802.11b는 애플 컴퓨터·델컴퓨터·시스코시스템스·어기어시스템스 등 주요 IT기업들이 잇따라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파크스어소시에이츠의 분석가인 커트 셔프는 "인텔의 브랜드가 소비자들의 무게 중심을 움직이도록 할 것"이라며 "홈RF는 새로운 기업의 지원을 추가해 퇴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고 말했다.

인텔이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PC에 삽입되는 얇은 무선디바이스, 무선PC카드, 손쉬운 설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되며 보안기능이 내장됐다. 이 제품은 사용자가 무선으로 네트워크 접속, 파일, 프린터와 같은 주변장치 등을 공유하고 집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웹서핑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인텔은 조만간 추가장비인 '게이트웨이'도 내놓을 계획이다

마쓰시타, PC용 TFT-LCD 개발중단

일본의 마쓰시타전기산업은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TFT LCD)사업을 재편해 사업부

문별로 중점개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쓰시타는 휴대폰과 액정TV용 TFT LCD의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노트북PC와 PC모니터용 등 수익성이 비교적 낮은 부문에 대한 개발을 중단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트북PC용 15인치와 그 이하 크기의 PC 관련 LCD 제품에 대한 생산체제는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또 도시바와의 싱가포르 현지 합작법인인 AFPD도 액정TV용의 저온 복합 실리콘(LTPS) TFT LCD를 조만간 생산할 계획이며, 내년 7월부터는 양산에 돌입할 방침이다.

디렉TV·서킷 시티 제휴

미 최대 위성방송회사인 디렉TV(<http://www.directtv.com>)가 초고속인터넷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제품 양판점을 운영하고 있는 서킷 시티(<http://www.circuitcity.com>)와 손을 잡았다.

서킷시티는 다음달부터 미국 전역에 있는 400여개 자사 판매점에서 디렉TV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판매할 계획이다.

디렉TV를 소유하고 있는 휴일렉트로닉스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텔로시티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사업에 진출했다.

한편 미국 자동차의 대명사 GM의 독립사업부인 휴일렉트로닉스는 구조조정작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디렉TV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디어 재벌인 루퍼트 머독이 이끄는 뉴스코프와 에코스타커뮤니케이션즈가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다.